

박근혜 버티기 하루하루가 재앙, 총파업-시민불복종으로 퇴진투쟁 확대

박성식 | 승인 2016.11.28 12:14

30일 평일 최대 촛불집회 열린다. 민주노총 총파업, 노점철시, 트랙터시위, 동맹휴업...



노동자, 농민, 빈민, 노점상, 소상공인, 학생, 시민사회 등 각계 대표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즉각 퇴진! 박근혜 정책 폐기!' 요구사항을 내걸고 '11월30일 1차 총파업-시민불복종의 날'을 선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박근혜가 국민적 퇴진요구를 무시하며 버티기에 들어가자, 30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중심으로 퇴진행동(박근혜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이 평일에도 최대 촛불집회를 예정하며 투쟁을 확대하고 나섰다.

- 30일 전국 16개 지역 총파업대회, 농민, 학생, 상인 가세한 '민중총파업'

민주노총과 퇴진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30일(수)을 <1차 총파업과 시민불복종의 날>로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30일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연맹, 서비스연맹 등이 파업에 돌입하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파업에 준하는 연가투쟁(집단휴가)으로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민주일반연맹 등 민주노총 가맹 기타 산별연맹들도 조합원 총회, 교육, 조퇴 등 가능한 방식을 동원해 참여한다. 민주노총은 도합 30만여 조합원이 평일 박근혜 퇴진투쟁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30일 파업에 돌입과 동시에 민주노총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16개 지역에서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여기에 농민들의 트랙터시위, 노점상 철시, 대학생 동맹휴업도 가세함으로써, 30일은 최대 규모의 평일 촛불집회가 열린다. 이 투쟁을 민주노총은 '민중총파업'으로 명명했고, 퇴진행동은 시민불복종 투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민 트랙터는 30일 다시 시위에 나서고, 전국 2~3만에 이르는 노점상들도 철시행위로 참여한다. 또한 25일부터 본격화된 대학생 동맹휴업은 파업대회가 열리는 30일에도 계속돼 이날은 서울대가 동맹휴업에 나선다.



김옥동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노동계를 대표해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파업대회 후 재벌사 규탄 도심행진, “재벌도 공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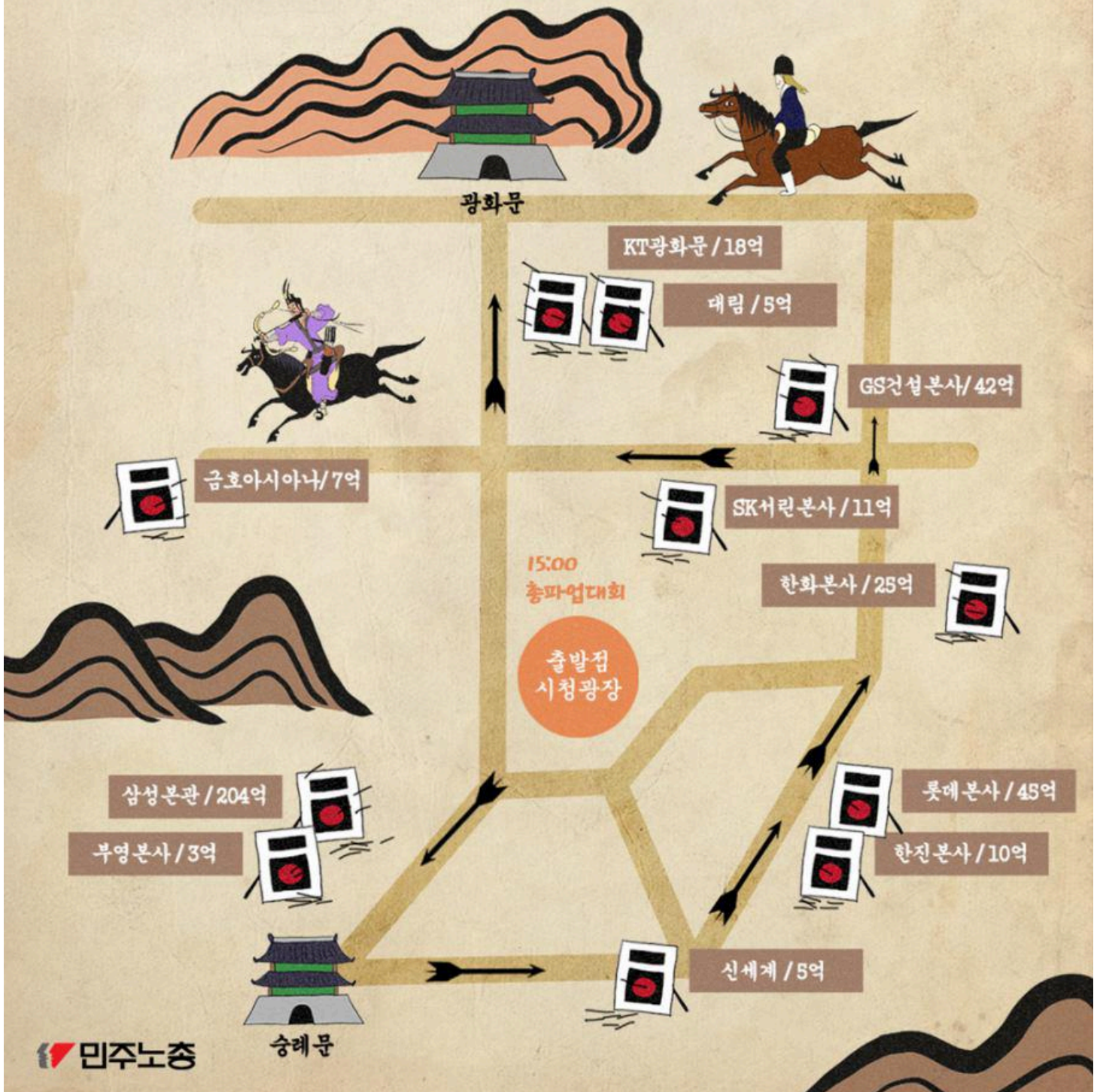
국민들은 재벌을 박-최 게이트의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30일 15시 서울광장에서 2~3만 명이 총 파업대회를 연 후, 16시부터는 광화문 주변 재벌사들을 돌며 규탄행동을 벌이는 가두행진에 나선다. 그 대상은 삼성, 대림건설, KT, 금호아시아나, GS, SK, 한화, 롯데, 한진, 신세계, CJ, LG, 부영 등이다. 민주노총은 “임기 없는 무한권력으로 정치권력을 좌지우지 해온 재벌자본은 공범을 넘어 몸통”이라고 주장했다. 김옥동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박근혜를 끝장내내고 세상을 바꾸는, 국민 정의를 실현하는 총파업”이라고 말했다. 재벌사 행진 후 18시부터는 국민촛불문화제 겸 파업문화제가 계속된다.

30일 민중총파업과 시민불복종 투쟁을 발표한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재벌규탄 발언들이 이어졌다. 전빈련(전국민민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 조덕휘 의장은 “국민촛불은 단순히 박근혜 개인을 끌어내리는 것을 넘어, 노동자 민중의 등골을 빼먹어온 뿌리 깊은 정경유착을 끝장내는 투쟁”이라고 했다. 중소기업들도 함께했다. 중소기업비상시국회의를 신규철 상임이사(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라며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재벌해체를 위해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할 것이며, 30일엔 이재용 구속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순실 재단에 774억 쫓은 재벌! "공범재벌" 분노 쫓기 대행진 11.30.(수) 16:00~

※ 15:00 총파업대회 이후 행진합니다.
시청광장-남대문-한국은행-을지로입구
-종각-광화문사거리-광화문광장



30일 15시 서울광장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후 공범 재벌사들을 찾아사는 행진이 시작됩니다.



박성식 kctuspeech@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